

# 여수시, 올해 첫 적조 대응 황토 살포

### 남면 화태·두라 해역...정화선 4척·철부선 4척 동원

### 적조예찰 활동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형바지선도 투입



여수시가 전남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자 가두리 및 집지역에 황토를 살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수산물관리이 지난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흥 열포~남해 마안도 동측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주의보가 발령되자 25일 어장정화선 4척, 철부선 4척을 동원해 적조가 발생한 남면 화태, 두라 등에 100여 톤의 황토를 살포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4척으로 적조예찰 활동을 해온 시는 앞으로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대형바지선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폭염에 따라 해수 온도가 높아지자 지난 6월말 적조·

고수온대미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어 양식어가에 해상가두리 그늘막 788개와 액화산소 116대를 공급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적조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나움 밀도가 ㎥당 100개체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올해는 잠파가 일찍 끝난 데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평년보다 주의보가 일찍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적조 발생에 따른 어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업인들께서도 자율방제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24일 진도를 포구리에서 이동진 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양과 판매, 전시가 한 공간에서 가능한 난(蘭)단지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 최첨단 '진도 난 단지' 개소

### 포구리 일원 512㎡ 부지...배양·판매·전시 한 공간서

진도군은 배양과 판매, 전시가 한 공간에서 가능한 난(蘭)단지가 진도를 포구리 일원 512㎡ 부지에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난 단지는 1억6000여 만원을 투입해 온도과 습도 등이 자동 조절되는 최첨단 시설로 조성됐다.

400여 점의 난이 상시 전시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난재배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전남 난문화협회 회원,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농업에도 불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빠르게 받아들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작목 재배가 필요하다"며 "춘란 산업은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과 함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난우회는 1995년 창립, 30여 명의 회원들이 진도 춘란 보존과 자연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텃밭 가꾸며 인성·창의성 키운다"

### 무안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신나는 원예활동



물론 식물을 보고 만지면서 텃밭이 즐거운 놀이터·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무안군은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몽탄초등학교와 정계남초등학교에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미술, 과학 등)과 연계한 텃밭 체험, 농촌체험, 실내정원 가꾸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기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는데, 벌써부터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텃밭체험은 아이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은

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 후에는 꼬마장터 일일마켓 텃밭요리, 사진콘테스트, 실내정원 가꾸기, 나의 꿈은 무엇일까? 등 다양한 원예활동으로 식물과 자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안정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완도 섬마을서 개매기·전복잡이

### 체험 참가비 1인당 1만~1만5000원 수준

폭염을 식혀줄 개매기·전복잡이 체험행사가 전남 완도 섬마을 곳곳에서 펼쳐진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완도군 노화읍 북고리에서 북고마을 어촌계 주관으로 개매기·전복잡이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복의 고장답게 마을 부녀회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복전, 전복과전, 전복리면 등 다양한 먹거리를 특판할 예정이다.

완도 약산 당목마을에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싱싱하고 맛있는 전복잡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약산 당목마을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접근성이 좋고 행사장 뒤편으로는 동백 치유 숲이 조성돼 산책을 즐기기도 안성맞춤이다.

완도 청산 도라마을에서도 오는 28, 29일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남해안 최대 여행지 가운데 한 곳인 청산도에서 여름철 색다른 재미가 선 보인다.

체험 참가비는 1인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며 전화 등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 여수시, 도심권 칩덩굴 제거 행정력 집중

여수시가 도심경관을 해치는 칩덩굴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칩덩굴 제거 목표지역을 610ha로 설정하고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등을 우선으로 제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연중 반복 작업 실시를 위해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25명 등 전문 제거작업단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비교적 쉬운 화학적 제거 대신 뿌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

### 목표지역 610ha...10월까지 동시다발적 제거작업

### 전문 제거작업단 운영해 연중 제거작업 실시 계획

여름철 무성하게 자라는 칩덩굴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려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읍·면사무소 등 관공부서와 협업을 통해 광범위한 면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칩덩굴은 1회 작업으로는 완전 제거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칩덩굴이 운전자 등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지역공관·미래창조·정부지원

전안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